

# 이형과 이념의 언어정치학

- 배삼식, <열하일기 만보> 연구 -

허준행\*

## <차례>

1. 머리말
2. 『열하일기』번역으로서의 <열하일기 만보>, 바뀐 것과 남겨진 것
3. 정체 - 문체 - 신체의 고리
  - 3.1.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 3.2. 행동을 부추기는 힘은 무엇인가?
  - 3.3. 지금보다 더 나은 그날은 언제 도래하는가?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극작가 배삼식의 희곡 <열하일기 만보>에 대한 해석적 작업을 통해, 이 작품에 내포된 의미를 연동하는 세 가지 몸(신체·문체·정체)의 갈래로 범주화하고, 이를 언어정치학의 자장에서 종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북경과 열하를 돌아본 박지원의 기록 『열하일기』는 평범한 기행문이 아니었다. 국왕이 직접 불온한 책이라고 거론할 정도로, 18세기 조선의 문치(文治)를 뒤흔든 정치적 텍스트였다. 이에 대한 번역적 횡단의 결과물인 <열하일기 만보>도 그렇다. (무)의식적으로 텍스트 안과 밖에 새겨진 정치적 전언은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이념, 그 자체로 기이한 대상들과 관계 맺는다. 그러면서 <열하일기 만보>는 운명 결정론의 원환 속에서 기이한 것의 본질·단독성의 보편성과 보편성의 단독성을 심문한다. 그것은 비관적 체념이나 낙관적 희원으로 단순하게 귀결되지 않는다. <열하일기 만보>는 그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때 망각되지 않는 기억의 역사가 중요하다. 잊힌 줄 알았던 것의 희미한 자취, 이것을 상기하면서 현재의 삶은 과거·미래와 접속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생성의 동력을 얻는다. 이와 같은 과정적 실천의 총합, 그 이상이 <열하일기 만보>의 언어정치학으로 구현된다.

주제어 : 배삼식, 번역적 작업, 언어정치학, 『열하일기』, <열하일기 만보>

\* 성균관대학교

## 1. 머리말

18세기 후반 정조는 문체반정(文體反正)을 단행한다. 그는 순정한 고문(古文) 대신 시정잡배 같은 패관소품체로 글 쓰는 풍조를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의도로 정조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문체반정이 노론 벽파와 남인 시파의 정쟁과 결부됐다는 것은 대다수 연구자가 동의하는 바다. 서학을 받아들인 남인과 패관소품체를 즐겨 사용한 노론의 대결. 그런 상황에서 정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남인을 비호하는 동시에, 서학을 사학(邪學)이라고 규탄하던 노론의 명분을 수용하여, 양자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 그러다 그는 하나의 방법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것은 패관소품체의 유행이 곧 서학의 융성을 초래한다는 발상이었다.<sup>1)</sup>

문체반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패관소품체의 검열이 서학의 제어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노론과 남인의 정치적 세력 균형도 맞춰진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정치 체제의 변화가 다른 아닌 문장 체제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적 전제다. 문장에 도가 담긴다는 문이재도(文以載道)에 입각한, 정체(政體)와 문체(文體)를 유비하는 관념이다. 이것은 배삼식의 희곡 <열하일기 만보>(2007)를 해명하는 데 주요한 참조가 될 만하다.<sup>2)</sup> 애당초 이 작품의 원천 텍스트인 박지원의 『

1) 박균섭, 「문체반정 독법 : 정조의 정치-교육론 미시 분석」,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634~635면 참조.

2) 배삼식, <열하일기 만보>, 『배삼식 희곡집』, 민음사, 2015. 본고에서는 <열하일기 만보>를 인용할 때, 각주를 생략하고 본문에 해당 면수를 표시한다.

<열하일기 만보>는 극작가 배삼식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이 작품으로 대산문학상·동아연극상·김상열연극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열하일기 만보>가 쓰인 지 10년이 된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석 연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배삼식 희곡을 단독으로 다룬 사례로는 <하얀 앵두>·<3월의 눈>·<먼 데서 오는 여자>를 ‘호모 사케르’ 개

열하일기』야말로, 정조가 지키고자 한 진지하고 엄숙한 ‘장’의 문장에 정

념으로 분석한 김옥란의 연구 정도가 있을 뿐이다.(김옥란, 「생체 기억의 생존자들, 비국민 혹은 호모 사케르」, 『한국극예술연구』 제5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김방옥의 연구는 이른바 “탈근대적 연극들 중 인간/동물의 탈경계성의 양상이 가장 잘 구현된 네 편의 국내외 희곡” 중 하나로, 배삼식의 <하얀 앵두>와 <별>을 다룬다.(김방옥, 「탈근대 희곡에 나타난 인간/동물의 탈경계성 연구 - ‘타자성, -되기, 생태적 공존’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그러나 이 두 편의 글은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이론을 배삼식 희곡에 다소 피상적으로 적용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외에 <열하일기 만보>를 주목한 논의로는 엄현희·김남수·최영주의 글이 있다. 엄현희는 연암의 발화, 그것이 가진 자유로움을 연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를 <열하일기 만보>의 특징으로 본다.(엄현희, 「손진책 연출의 『열하일기 만보』 - 박지원의 예술과 정치의 결합, 혹은 교란」, 『공연과 리뷰』 제56호, 현대미학사, 2007, 188면 참조.) 그렇지만 리뷰의 분량 상 제약으로, 엄현희의 논의는 <열하일기 만보> 공연을 짧게 스케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남수는 무용평론가의 관점에서 <열하일기 만보>를 분석한다. 그는 이 작품을 풍자와 해학으로 소통하는, 모델화된 사막 마을과 ‘관념의 모험’으로 규정하고 있다.(김남수, 「장르 간 비평적 소통 : 철학극장, 알레고리와 관념 사이로 어슬렁거리다 - <열하일기 만보>」, 『연극평론』 제45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07, 179면 참조.)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념에 대한 1990년대 욕망의 복수”(위의 논문, 183면)를 거론하는데, (후술하겠지만) 본고의 입장은 <열하일기 만보>가 그런 종류의 역사적 복수마저 상대화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그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최영주는 손진책 연출의 미학적 특수성을 <열하일기 만보>를 통해 개진한다. “<열하일기 만보>에서는 마당극 양식을 접맥시킨 흔적이 엿보이는 한편, 토속적인 동시에 세련된 시각적 드라마터지로 독특한 미학을 연출한다.”(최영주, 「<이춘풍 난봉기>와 <열하일기 만보>를 통해 본 손진책의 ‘마당미학’」,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407면.) 그러나 본고는 손진책 연출의 공연 <열하일기 만보>가 아니라, 배삼식 희곡 <열하일기 만보>에만 초점을 맞춘다. 희곡 텍스트와 연행 텍스트의 불가분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가 배삼식과 그의 특정한 한 작품만을 왕복하는 꼼꼼한 읽기를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선택적 배제가 불가피했음을 부기해둬야 할 듯하다. 작가를 경유한 희곡 텍스트 분석에만 집중하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자 특징이다. 무대에 올린 연행 텍스트와 결합한 희곡 텍스트 분석은 차후 과제로 삼는다.

면으로 반하는 난잡한 문장의 표본이지 않았던가. 황해군 금천군 연암협에 머물던 박지원이 그곳의 지명을 따 지은 호 연암도 기실 ‘연암체’로 더 알려져 있었다.

골계·우언·소담한 그의 문체는 연암(燕巖)이라는 뜻 그대로, 바위 언덕을 경쾌하게 나는 제비 같았다. 그러나 통치자는 참을 수 없는 연암체의 가벼움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경박한 문체의 글쓰기가 세간에 퍼질 때, 세상의 질서도 어지럽게 되리라. 1793년 1월 경연에서 그는 하명한다. “요즈음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그 근본을 따져 보면 모두 박 아무개의 죄이다. 『열하일기』는 내 이미 익히 보았으니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자는 바로 법망에서 빠져나간 거물이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뒤에 문체가 이와 같이 됐으니 당연히 결자해지하게 해야 한다.”<sup>3)</sup> 순수하고 바른 글 - 반성문을 속히 지어 올려 『열하일기』를 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정조의 명을 담은 서신을 받고 박지원은 눈물을 흘린다.

그렇지만 그의 눈물이 과연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가는 곰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글로써 장난거리를 삼았다는 자책이 이어지지만, 박지원은 자기의 전향을 입증하는 행위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는 한참 나중에, 정조와 직접 대면한 뒤에야 반성적 성격을 띤 글을 한 편 작성했다. 정조의 명이 내려지고 5년이나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만남이 정조가 박지원을 면천군수로 임명하는 자리였음을 상기한다면, 정조나 박지원이 일종의 연극적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혹한 처분을 받은 성균관 유생 이옥과 비교하면 더 그렇게 느껴진다. 타락한 문체를 쓴다고 정조에게 지목된 그는 하루 50편씩 반성문을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고, 강제

3)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남직각(南直閣) 공철(公轍)에게 답함」, 『연암집 제2권』, 한국고전번역원,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조.

로 군역까지 이행했다.

정조는 정치적 대세였던 노론 박지원과 당시 소수 세력에 불과했던 북인 이옥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는 정체와 문체의 연동을 인지했지만, 그것을 융통성 없게 적용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박지원도 마찬가지다. 정조의 연기에 그 역시 적당한 연기로 응대했다. “만약 작법을 중화에서 본뜨고 문체를 한당에서 답습한다면, 나는 작법이 고상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실로 비루해지고, 문체가 비슷하면 할수록 그 표현이 더욱 거칠어질 것이 뉘를 볼 뿐이다.”<sup>4)</sup> 이덕무가 엮은 첫 문집에 서문을 쓴 박지원의 입장이다. 야인으로 떠돌았던 이옥이 그랬듯, 박지원의 문체도 가장은 할 수 있어도 임금이 강요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체는 정체와 연관될 뿐 아니라, 신체와 관계 맺는 ‘몸’의 이형태다. 이와 같은 명제의 함의를 극작가 배삼식의 희곡 <열하일기 만보>에 대한 해석적 작업을 통해, 보다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을 듯하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전유한 번역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열하일기 만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하일기』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자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열하일기』와 <열하일기 만보>에 내포된 의미를 연동하는 세 가지 몸(신체·문체·정체)의 갈래로 범주화할 것이다. 그 목적은 이를 언어정치학의 자장에서 종합하는 데 있다. 말을 비틀고 유희하며 ‘말들의 풍경’을 조망하는 <열하일기 만보>의 언어정치학은 언어를 존재의 뿌리로 삼는 문학 - 인간의 일면을 현전시킨다.

4) 박지원, 신호열·김명호 옮김, 『영처고서(嬰處稿序)』, 『연암집 제7권 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04;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조.

## 2. 『열하일기』 번역으로서의 <열하일기 만보>, 바뀐 것과 남겨진 것

<열하일기 만보>를 쓸 무렵 배삼식은 『열하일기』를 쓰고 난 박지원에 게 가해진 것과 유사한 압력에 시달렸던 듯하다. 인터뷰에서 그는 <열하일기 만보>가 본인에게 중대한 고비가 된 시기에 쓴 희곡임을 밝히고 있다.<sup>5)</sup> 플롯이 불분명하여 갈등이 빈약한, 고전적 극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을 쓴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고 배삼식은 토로한다. <열하일기 만보>를 쓰기 전 무대에 올린 <주공행장>(2006)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여러 연극 주체의 요구와,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내적 검열 가운데 창작 활동을 해나갔다. 이대로 연극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가. 배삼식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마음대로 희곡을 써보자고 다짐한다. 그 결과물이 <열하일기 만보>다.

배삼식은 2011년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털어놓았다. “때로는 갈등을 아예 배제해 버리는 만용을 부려 보기도, 때로는 국면이 변함에 따라 자꾸만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가는 (고전적 플롯의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이비 갈등’들을 배치하면서, 갈등 자체의 상대성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그것을 무화시키는 방법을 써 보기도 하면서 (……) [<열하일기 만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난장을 한번 벌여 보았던 거지요.”(『다성적 세계로서의 희곡』, 587면) 만용·난장 등의 표현을 쓰며 겸사했지만, 이것은 결국 그가 장르 형식을 포함한 넓은 범주의 문체, 즉 자기 자신의 몸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배삼식의 최후작이 됐을지도 모를 이 작품이 왜 『열하일기』에 뿌리에 둔 <열하일기 만보>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5) 심규선, 「극작가 배삼식 “이미 있는 길만 걸인 것인가”」, 『동아일보』, 2017.4.28.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배삼식이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한 박지원에게 공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박지원을 기릴 작정으로 <열하일기 만보>를 쓰지 않았다. 배삼식이 『열하일기』를 천천히 돌아본다는 뜻을 담아 <열하일기 만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할 때<sup>6)</sup>, 그가 작자 박지원보다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각색과 번안 - ‘번역(translation)적 작업’을 수행한 것임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아래에 서서 수동적으로 상위의 타자를 받아들이는 이해(under+standing)와 달리, ‘~(을) 통해서 ~(에) 이르는’ 횡단의 과정인 번역은 원어와 번역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상호 이동이라는 점에서 번역적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화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허삼관 매혈기>·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원작인 <거트루드> 등, 배삼식이 행한 번역적 작업의 성과는 훨씬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의의를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거기에 더해 <열하일기 만보>가 『열하일기』의 아류가 아니라, 『열하일기』를 통해서 <열하일기 만보>에 다다른 횡단의 산물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 작품이 번역적 작업이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실험과 섞임, 익숙함과 기이함이 어우러진 언어의 혼종적 양태를 테마로 삼는 한에서 더욱 그렇다.<sup>7)</sup> 건릉제 만수절 축하 사신단 대표를 맡은 팔촌 형 박명원의 자제군관으로, 청나라에 간 박지원의 기행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 공식적 직무를 맡지 않았던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질적인 것과 접촉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일기로 남겼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저술이되 그의 발언으로만 가득 찬 텍스트는 아니다. 이 책에는 박지원이 난생 처음 조우한 사람들·사물들의 목소리

6) 배선애, 「[극작가 배삼식과의 만남] 인간을 ‘응시’하는 연극적 시선」, 『공연과 이론』 제50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3, 239면 참조.

7) 번역적 견지에서 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의 모방 그 이상의 산출 및 혼재를 분석한 내용은 조재룡, 「프락시스와 테오리아의 변증법」, 『번역의 유행들』, 문학과지성사, 2011, 337~338면 참조.

가 응성댄다. 그러므로 『열하일기』는 배삼식이 희곡에서 구현하고자 애 쓰는, ‘중심의 목소리가 부재한 다성적 세계’의 전거라고 할 만하다. 또한 이것이 『열하일기』가 가진 고유한 결정체이기도 하다. 거듭된 번역적 작업의 변이 과정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무언가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열하일기 만보>에서도 계승된다. 서두에서 정체 - 문체 - 신체의 고리를 상술한 까닭은 이 작품의 무언가를 연계된 세 개의 향으로 착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세 항목의 중간에 위치한 것은 문체다. 정치의 몸과 감각의 몸은 언어의 몸을 매개로 결속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열하일기 만보> 분석에 앞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이 글에서 거론하는 문체가 강건체니 우유체니 하는 좁은 범주의 문체 규정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문체는 글의 의장과 의미가 교호하며 빚어내는 실체적 효과다. 그럴 때 문체는 글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중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가 되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언어의 보이는 몸으로서 화한다. 이를 굳이 실체적 효과라고 정의한 연유는 어떤 글의 문체도 고정불변하지 않아서다. 문체는 화용론적 성질을 띤다.

후기 구조주의의 출현 이래 텍스트의 자기 완결성이라는 오랜 환상에는 금이 갔다. 텍스트가 매체를 경유한 독자와 교섭하는 문학장의 형성, 그 자장 안에서 텍스트의 자기 완결성은 독자에 의해 변형되거나 끊임없이 유보되고, 텍스트는 해석의 과정적 지평에서 생성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는 텍스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때로는 텍스트 자체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문체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맥락을 중시하는 화용론적 성질을 가진, 다른 무엇보다 ‘언어적 몸’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바탕에 둔 용어의 활용형. 이상의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열하일기 만보>에 착목하려 한다. 문체와 함께 작동하는 정체와 신체의 역학을 다음 이정표 삼아서다.

박지원은 178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그해 10월 조선에 돌아왔다. 그



리고 나서 그는 중국 견문기를 ‘열하일기’라는 제목으로 집필한다. 사신단의 예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북경일기’가 됐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압록강에서 한 달 넘게 걸려 북경에 막 도착한 조선 사신단은 급작스러운 통보를 받는다. 열하로 가야한다는 상부 지시였다. 그때 건륭제는 피서지 열하에 머물고 있었는데, 황제의 생일 전까지 그곳에 도착하려면 5일 이내에 말을 달려야 했다. 박지원은 열하에 가기를 주저했다. 여독도 풀리지 않았고, 북경 구경도 제대로 못한 탓이다. 하지만 박명원이 그의 설득에 나섰다. “이번의 열하 여행은 앞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 만약 귀국하는 날에 누가 열하가 어떻더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터인가?”<sup>8)</sup>

호기심과 호승심을 자극 받아 박지원은 열하로의 강행군에 동참하기로 한다. 실제 그는 『열하일기』의 절반 가까이를 열하에서 겪은 체험을 기록하는 데 할애했다. 박지원에게 열하는 북경보다 더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런데 <열하일기 만보>의 열하는 그에게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니다. 전생과 달리 현생의 박지원은 열하에서 나고 자란 네발짐승이기 때문이다. 그는 열하에서 살지, 열하를 여행하지 않는다. 열하도 변모했다. 강희제 시절부터 매년 황제가 피서지로 삼을 만큼 산수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이곳은 이제 불모의 사막이 됐다. 그러면서 거주민들의 마음도 바뀌었다. 본디 열하는 만리장성 밖 여러 민족이 북적대던 고장이었다. 반면 현재 열하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열하일기 만보>는 『열하일기』의 설정을 뒤집는 방식을 취한 번역적 텍스트다. 이럴 때 제기되는 질문은 두 가지를 같이 적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왜?’라는 목적적 물음과 ‘어떻게?’라는 방법적 물음이다. 원전을 전복하여 재구성하는 배삼식의 번역적 작업을 검토

8) 박지원, 김철조 옮김, 「막북행정록」, 『열하일기 1』, 돌베개, 2009, 459면.

하는데, 두 가지 물음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어떻게’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왜’라는 규명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것을 이런 의문들로 구체화하려 한다. 개별적 혹은 통합적으로 정체 - 문체 - 신체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행동을 부추기는 힘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날은 언제 도래하는가?’

위의 질문들은 배삼식의 말마따나 기존의 갈등과는 구별되는, (갈등 아닌) 갈등으로 엮힌 <열하일기 만보>의 갈등 양상을 원환하며 제기될 것이다. 보이는 대로 보면 <열하일기 만보>는 들뢰즈·가타리의 철학을 펼쳐내기에 더없이 알맞은 텍스트다. 그러나 배삼식이 이 작품을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지는 않다. 희곡의 배경이 사막이고, 정주와 이주가 전면화된다고 해서, ‘매끄러운 공간과 ‘흙 파인 공간의 넘나듦과 유목적 사유(『천 개의 고원』)를 선불리 빌려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듬거리며 찾아봐야 한다. 비록 헤매거나 틀린다 해도, 그 편이 배삼식 희곡에 더 풍부한 해석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 3. 정체 - 문체 - 신체의 고리

#### 3.1.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제시한 물음은 이것이다. <열하일기 만보>에서 연암은 처음부터 말한다. 그는 내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극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네발짐승으로 분한다. 네발짐승이 돼서도 연암은 말한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훈련받은 뒤, 오래 침묵할 때조차 그는 말을 잃지 않았다. 연암은 쉬지 않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핵심적 사안은 네발짐승 말(馬)이 말(言)을 한다는 것 - 언어유희적 장치로서

동물이 언어를 쓴다는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6장에서는 낙타 반선·호랑이 초정·누에고치 무관도 말한다. 이것은 초반부에만 특이하게 다가올 뿐, 나중에는 범상하게 느껴진다. 어사가 연암을 데려가려는 것도 그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의 특별한 작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명제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뿐이다. 동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사적이다.’<sup>9)</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을 것이다. 소어로서 또는 제약으로서의 언어를 가진 인간의 비극성을 서술하는 견해나, 본능을 따르는 동물이 현실에 육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욕망을 좇는 인간은 그러지 못하므로 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다.<sup>10)</sup>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방점이 찍히는 것은 인간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연암은 네발짐승인 채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동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가 언어를 사용하게 된 원인도 ‘무엇이 이토록 나를 가렵게 하는가?’(341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여 도달한 방법적 회의의 완성태인 ‘나를 연암은 이토록 쉽게 발견한다. 그는 앞의 물음을 전유하여 자신만의 코기토(Cogito)에 도달했다. ‘나는 가렵다. 한데 가려움을 느끼는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로서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증명했다. 그렇지만 그의 성찰은 ‘주어진 나를 인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현세에서 자기 자신은 유일무이한 실존이다. 그에 비해 연암은 보름 정도 지속된 사유의 격전 끝에 “자신을 선택”(342면)하기에 이른다. 사유에 돌입한지 일곱 날 째, 연암의 정신은 현세를 초월해 과거와 미래

9)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4, 33면 참조.

10) 전자의 견해는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언어와 비극』, 『언어와 비극』, 도서출판b, 2004, 65~66면 참조. 후자의 견해는 기시다 슈, 권정애 옮김, 『언어의 기원』, 『게으름뱅이 학자, 정신분석을 말하다』, 펄북스, 2017, 235~237면 참조.

를 중횡무진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연암에게는 아래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 마부 창대와 열하를 여행한 전생의 연암.(당시 하인 장복은 어쩔 수 없이 북경에 남았다.)
- 창대의 가족으로 열하에서 일하는 현생의 연암.(전생과 달리 장복도 열하에 있다.)
-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후생의 연암.

현생의 연암은 전생의 자신을 소환한다. 가장 큰 동기는 연암이 자기 눈앞에 있는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342면)기 때문이다. 이번 생은 창대가 주인이고, 그가 부리는 짐승이 연암이다. 하지만 저번 생은 그렇지 않았다. 연암이 주인이고, 그가 타는 말의 고삐를 잡고 걷던 이가 창대였다. 연암은 전생에 창대와 맺은 관계를 이생에 가져다 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생에 맺은 둘의 위계는 역전된다. 창대는 연암에게 경어를 쓰면서 그를 “나리”로 호칭한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만났고, <열하일기 만보>에도 나오는 반선(판첸라마)처럼, 연암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 채 환생하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연암의 말 외에는 없다.

설령 전생의 삶이 연암의 말 대로였다고 해도 그렇다. 현생에서 창대가 연암을 시중들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연암은 말로써 창대와 관계를 과거의 형태로 복원한다. 이것은 이상한 전도다. 1장에서 창대는 네발짐승을 마을을 떠난 아들 ‘미중’으로 부른다. 본래 미중은 박지원의 자(字)다. 그러니까 창대의 사라진 아들 미중은 연암의 또 다른 화신이라는 뜻이다. 이 점을 고려해야, 네발짐승이 연암이 된 시기가 어째서 미중이 사라진 이후였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연암은 부자 관계에서 자(子)이기보다, 주종 관계에서 주(主)여야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을 가진다

는 사실을 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단순해서는 안 된다. 언어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압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너무 유식한 말만 해대니까. 설 새 없이 지껄여 대거든.”(345면)

부혜는 연암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투덜댄다. 그런 형이상학적 다변으로 연암의 보유한 언어의 상징권력은 커진다. 한 번도 열하를 떠난 적 없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이주를 결심하게 할 정도다. 이야기로 설하는 연암의 언어는, 호체를 필두로 한 장로들이 금지와 규범의 서적 『선조어록』 구절만 암송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다른 한편 초매가 말을 하게 되는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언어가 아닌 울부짖음으로 자신의 첫 등장을 알린다. “(소리) 아오아! 아오아! 이오이애이, 어이이어! 와 아이오우이으 우이어오아!”(339면) 희곡에는 괄호 안에 이 소리의 의미가 적혀 있지만, 공연에서 관객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언어를 갖지 못한 이때의 초매는 언어를 구사하기 전 네발짐승과 겹친다.

극이 진행되면서 초매의 파롤은 점점 랑그를 획득해간다. <열하일기 만보>에서 그녀는 연암과 더불어 언어를 나중에 갖는 특수한 인물이다. 『열하일기』에 초매에 관한 구절이 있다. 코끼리를 본 박지원의 문장이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초매를 지었다고 했으니, 초매란 빛은 검고 형태는 뽕양게 자욱하여, 비유하자면 동이 틀 듯 말 듯한 때와 같아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똑똑히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라고들 말한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늘이 킁킁하고 뽕양게 자욱한 속에서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인지.”<sup>11)</sup> 그는 코끼리를 관찰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의 섭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순진한 사고를 비판한다. 천지개벽 전 만물의 혼돈 상태였다는 초매도 그는 납득하지 못한다.

<열하일기 만보>에서도 다르지 않다. 수다스러운 연암은 초매에 대해서만큼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초매 역시 마을 사람 전부가 신기해하는

11) 박지원, 김철조 옮김, 『산장잡기』, 『열하일기 2』, 돌베개, 2009, 511면.

연암에 홀로 무관심하다. 두 캐릭터는 뒤늦게 언어를 갖게 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극이 전개되는 동안, 연암과 초매는 대화 한 번 나누지 않는다. 기묘한 모양새다. 초매가 소리에서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계기는 연암의 각성과 맞물려있었다. 연암의 말이 열하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때쯤 초매는 시각과 청각을 회복했고, 어사도 “586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기 순력 행사”(372면)로서 이곳에 도착한다. 수십 년간 열하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상관된 수순을 밟는 일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열하는 황제가 정기적으로 행차하는 휴양의 장소이자, 치세의 권역이기 때문이다. 북경에 있던 황제가 올 때마다 매해 열하는 황지(皇地)로 승격된다. 열하의 통치 권력장이 요동치는 것이다. 따라서 황명을 받든 어사가 이곳에 들르기 전부터 변화는 예비적으로 이루어진다. 황제(의 대리)를 맞기 위해 연암은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기이한 것으로서의 상징권력을 갖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의 언어다. 한데 문제가 있다. 어사는 대리자일 뿐 진짜 황제가 아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가 없다. 아니 어찌면 그 자리에 일찍부터 그는 와 있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하면 황제에게 바칠 공물이 도착하고 나서야 언어를 완전하게 되찾은 한 사람, 초매다. 가르치는 연암의 언어와 명령하는 초매의 언어. 두 언어의 상징권력은 충돌하리라.

그러나 전술한 대로, 연암과 초매는 맞부딪치지 않는다. 연암과 어사의 갈등만 잠시 비춰질 뿐이다. 연암과 초매의 언어는 서로를 외면하며 지나친다. 그들은 오히려 상보적으로 보인다. 연암과 초매는 동일한 자극에 의해 독자적인 언어를 늦게 얻었다. 그래서 이들은 단독적이라기보다, 보편적 공동 환상 안에 엮여 있는 듯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려면, 지금까지 다룬 언어의 권력론은 다음 장의 맥락에 새롭게 접합시켜야 할 것 같다.

### 3.2. 행동을 부추기는 힘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제시한 물음은 이것이다. 어사의 순력에는 일정한 주제가 있다. 이번 테마는 이념이다. 그는 이념이 양념과 비슷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너무 세면 음식을 망치지만 아주 없어도 심심하지. 옛날엔 흔했는데, 요샌 영 귀해져 버렸어. 요새것들은 이념, 양념은 고사하고 아주 날로 먹으려 드니까.”(377면) 그는 이념의 예로 세 가지를 보여준다. 낙타 반선·호랑이 초정·누에고치 무관이다. 『열하일기』에 나오는 판첸 라마를 비튼 낙타 반선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 - 색즉시공공즉시색과 삼법의 의 제행무상을 설파한다. 물질적 현상의 실체는 부재하고, 이와 같은 실체 없음이 물질적 현상을 추동한다는 원환론적 세계관과 모든 것의 무상성을 드러내는 교리. 낙타 반선은 그것을 의미 없이 읊다 퇴장한다.

호랑이 초정은 『열하일기』에 담긴 인간의 타락한 행태를 꾸짖는 「호질」의 호랑이와 박지원의 문우 초정(楚亭) 박제가를 결합한 캐릭터다. 그는 억압적 기제를 타파하고 폐색된 질서를 재편하는 혁명을 사납게 외치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역시 박지원의 친구인 이덕무를 패러디한 누에고치 무관(戀官 : 이덕무의 자)이 등장한다. ‘책만 보는 바보로서의 간서차’ 지식인을 대표하는 그는 “나는 누구인가?”만 중얼대고 있을 뿐이다. 무관이 거처를 삼은 나무의 정체는 어사가 말해준다. “이 나무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라 돈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이름하야 민주목(民主木)이라 하지. 이 그늘 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황제라고 믿게 된다네.”(381면)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웃는다. 터무니없다는 비웃음이다.

낙타 반선은 현실을 초극하는 종교로서의 이념, 호랑이 초정은 현실을 변혁하는 사상으로서의 이념, 누에고치 무관은 현실을 대의 운영하는 정치로서의 이념을 가리킨다. 형태와 성질은 다르지만 셋 다 현실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라 불린 것들은 본시 그랬다. 지금 여기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살아낼 것인가의 화두가 각양

각색의 이데올로기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실천적 가능태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만든다. 역사가 예증했던바 그대로,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도그마로 변질되기 일쑤다. 현실에서 창안된 발명품이 도리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집어 삼키는 역설이다.

매력적인 이데올로기일수록 교조주의자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낙타 반선·호랑이 초정·누에고치 무관의 이데올로기도 그럴 듯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이데올로기다. 일찌감치 어사는 이들을 순치시켜놓았다. 이념이라 이름 붙여진 것들은 <열하일기 만보>에서 한갓 놀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를 끌어 모으는 어사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계내계외기사기물총람순력어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직분은 “이 세상의 온갖 기이한 것들을 찾아 모아들이는 것”(373면)이다. 거기에 어사는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이 일 자체가 황제”(374면)라고 부연한다.

갖가지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고, 선별하고, 수집하는 그의 이데올로기는 ‘오디즘(odd+ism)’이라고 부를 만하다. 하지만 기이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사만이 아니다. 기이한 것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해,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기이한 것을 비중 있게 다루는지를 반증하는 열하 장로들을 보라. 이들은 『선조어록』의 가르침 -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에 대하여’를 되새긴다. “여전히 밝은 기이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너도나도 기이한 것들을 두고 다투어, 온갖 천박하고 헛되며 더러운 짓거리들을 벌이기에 여념이 없다. 아름답던 선조들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다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355면) 이처럼 열하 장로들은 기이한 것의 무도(無道; 악·투쟁·욕망)와 기이하지 않은 것의 도를 대비시킨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심을 강론하는 열하 장로들부터가 기이한 것에서 파생된 존재라는 데 있다. 추오·호체·강량



은 중국 신화집 『산해경』에 나오는 괴상한 캐릭터들이다. 기이한 것에 근원을 둔 이들이 기이한 것을 극도로 적대하는 모습은 그것 자체로 기이한 정신병리학적 증상처럼 보인다. 억압의 대상은 많은 경우, 억압하는 주체를 지탱하는 실재다. 그리고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는 무의식의 기본 법칙은 열하에서도 어김없이 통용된다. 기이한 것을 억눌러왔던 이곳은 기이한 것의 담론으로 들끓는다. 촉매는 연암이다. “천하를 움직이는 건 결국 힘이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기이한 것들을 더 많이 틀어쥐고 있느냐에 달린 거라고”(356면) 그는 말하는 네발짐승의 기이함으로, 기이함을 옹호하는 말로 열하 장로들과 논쟁한다.

표면적으로 연암과 열하 장로들은 대립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힘으로서든 악으로서든, 기이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다. 특히 기이한 것을 힘의 근간으로 보는 연암의 의견은 기이한 것을 모아 힘을 얻는다는 어사의 논리와 조응한다. 이런 점에서 극의 후반부에 연암과 어사가 대치하는 장면이 나와도, 그것은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치열한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사의 위명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암의 주장 - 이념은 낙타 반선·호랑이 초정·누에 고치 무관의 이념이 그랬듯, 어사에게 쉬이 붙들린다.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 연암을 포착한 어사는 말한다. “딱 내가 찾던 물건이로군. 사람들의 마음을 달뜨게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는 않은 것…….”(410면)

기이한 것의 표상으로서 연암은 열하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어사가 원하는 것을 바치지 못하면 열하가 소멸된다는 협박에 그는 “지워지기 전에 지워 버리는”(404면) 탈주의 전략을 제안한다. 쉽 없는 도주론을 주창하는 연암의 이념에 열하 사람들은 들뜬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결행한 이들은 없다. 각자 사정으로 사람들은 열하를 떠나기를 포기한다. 어사는 느긋하다. 사람들이 열하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땅 전부가 벌써 영토화됐다고, 이를 탈영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는 연암을 조소한다. 어사가 찾던 기이한 것으로

서의 이념에 연암은 정확하게 부합했다.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전혀 기존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실상은 그 안으로 수렴되는 (불)온한 이데올로그로서다.

물론 모든 이데올로기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질 토대와 가변적 정세 속에서 탄생하는 이데올로기는 나름대로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 관건은 이데올로기의 면모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쓰임새다. 다르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배치이기도 하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언제·어디에·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오디즘을 전유한 어사와 연암과 열하 마을 사람들의 상이한 태도가 이를 방증한다. 그들은 사실상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숭배하든 탄압하든, 기이한 것은 권력의 중핵이다. 주로 ‘바깥에서 유입되는 것’으로서 기이한 것이 힘을 가진 연유는 간명하다. 이것은 일자가 은폐하는 차이를 부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다리 세 개 달린 사람”(334면)은 길을 잃어 밖에서 열하로 흘러들어왔다. 장로들은 그를 가둔다. 다리 세 개 달린 사람의 이질성이 마을의 안정을 뒤흔들 불안 요인을 갖고 있어서다. 외부에서 들어와 감춰진 내부의 차이를 적시하고, 그러면서 멈춰 있는 것을 부단히 움직이게 하는 운동성이야말로 기이한 것에 내재한 힘이다. 그러니까 오디즘의 실재는 발산하거나 수렴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정동적 파장의 총체다. 그 들끓는 힘을 모아 거느린 자가 <열하일기 만보>의 황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명을 받은 어사가 기이한 것을 끌어모을 때 기이한 것의 동력은 사라지고 만다. 기이함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렇다. 기이한 것이 오디즘으로 이데올로기화 되면, 기이한 것은 거꾸로 평범해진다.

이런 전제에서 연암과 어사가 기이한 것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만만을 좋아하는 거보다. 그는 기이한 것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았다. 기이한 것을 바치지 못하면, 열하를 없애겠다는 어사의 으름장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부화뇌동한다. 오직 거보만 예외다. “이따위 마을은 없어지는 게 나아요! (……) 이 마을이 남아 있는 한, 난 만مان이를 가질 수 없어! (……) 고통과 치욕 속에 빠져 있는 여자에 하나도 건져 내지 못하는 게 이념이라면, 그따위 이념은 필요 없어! 이런 이념은 죽여 버려야 해!”(411면) 그는 열하를 존속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인 연암을 죽이려 한다.

거보는 어사와 연암이 공모하는 기이한 것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 이념의 배치 안에서, 이념을 뚫고 나와, 이념이 덧씌운 굴레를 파 열하려는 그의 행동은 사랑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늘 그렇듯이 사랑의 급진성은 이념의 금제를 초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배삼식은 <열하일기 만보>를 낭만적 사랑의 승리로 귀결시키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랑 자체가 진리와 등치될 수는 없어서다. 이념의 배치론에서 사랑은 희망이 아니다. 도무지 희망처럼 보이지 않는 희망, 그 희미한 가능성을 다음 장에서 타진해보려 한다.

### 3.3. 지금보다 더 나은 그날은 언제 도래하는가?

세 번째로 제시한 물음은 이것이다. 거보는 연암을 죽이지 못한다. 그 순간 자신이 새로운 황제임을 깨달은 초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등장으로 모든 혼란은 종식된다. 이제 유배가 끝나 돌아갈 때가 됐다고 말하는 초매를 보고 어사는 크게 놀란다. “넌 눈만 뜨고 있지 볼 줄을 모르는구나. (……) 2344년 전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네놈 아니었더냐? 오늘의 일을 말해주었던 것도 네놈의 입이 아니었더냐?”(412~413면) 초매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사를 꾸짖는다. 그녀의 일갈을 통해, 관객-독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오래 전 옛날에 예정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어사조차 어안이 병병하다. 사실 이런 예정설은 그가 열하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

“모든 건 예정돼 있어! 난 여기 예정대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거야. (……) 정확히 586년 전 오늘, 이 수레가 이곳에 이르렀었고, 오늘의 방문은 그때 예고되었지.”(372면) 어사의 발언을 신뢰한다면, <열하일기 만보>는 운명 결정론에 입각한 세계로 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열하에서 미래는 과거에서 확정돼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정해진 미래를 실현하는 시제로 기능한다. 한데 그런 시간관은 이를 포괄하는 상위의 시간관에 종속된다. 예를 들어 어사는 정해진 한 주기 - 586년의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나, 그 이상의 주기를 둘러싼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초매가 언급한 ‘2344년 전은 586년 주기가 네 번 반복된 시기인데, 어사는 그 점을 잊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암과 초매가 그렇듯, 열하는 환생한 이들이 (차이를 노정한) 반복된 삶을 사는 땅이라는 점이다. 어사도 그럴 것이다. 지금의 그, 586년 전 그, 2344년 전 그는 동일인이되 동일인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열하에 왔던 박지원이 오늘날 네발짐승 연암으로 열하에서 태어났음을 떠올리면 된다. 그는 연암이면서 연암이 아니다. 열하에 있는 전부가 그렇다. 다만 기억의 유무에 따라, 전생을 상기한 자(연암·초매)와 전생을 망각한 자(장대·창복 등)로 분류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전생을 상기한 자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이에 비해 전생을 망각한 자들의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플라톤이 제시한 동굴 비유에서, 모방의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현인과, 여전히 모방의 세계만이 세상의 전부인줄 아는 범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열하는 깨달은 자만이 떠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연암과 초매는 자신을 묶은 사슬을 끊고 열하 밖으로 나간다. 이때 함께 눈 여겨 봐야 하는 인물이 초매와 같이 길을 나서는

만만이다. 그녀는 열하에서 곡식 등을 받고 몸 파는 일을 했다. 한데 만만의 매춘은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을 실행하는 것에 가깝다. 어머니는 딸에게 줄곧 이렇게 말해 왔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넌 이 마을의 순결을 위해 일하는 거다.”(349면) 숭고한 대의로 포장했으나, 이것은 희생양 이데올로기의 전승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열하 마을 사람들은 만만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희생 제의의 제물로 생각한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만만을 기이한 것으로서 어사에게 봉헌하려 한다. 하지만 어사는 그녀를 ‘창녀 - 더러운 거’라고 한 마디로 규정한다. 창녀는 흔하므로 기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만만을 데려온 산고와 제건은 그녀의 하이힐을 들이민다. 두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힐에는 침략과 복수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다. 옛날 만만의 조상들이 열하를 침범했다. 만만의 조상들은 열하 마을 여자들에게 하이힐을 신겼다. 그러다 만만의 조상들이 열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만만에게는 까마득한 선대의 할머니가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혔다. 열하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하이힐을 신게 하고, 매춘부로 만들어 모계로 승계시켰다. 그렇게 하이힐은 만만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힐은 열하 마을 사람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기억의 되새김이다. 열하 마을 소년들도 그 사실을 안다. 어사는 이를 “순결을 위한 더러운 신발”(396면)로 정의하고, 과연 하이힐이 기이한 것일 수 있는가를 고심한다. 그는 만만에게 억울하거나 부끄럽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다만 거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고통스러운 적은 있었다고 덧붙인다. 어사는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기이하기보다는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연암을 보고 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달뜨게 하지만 전혀 위험하지는 않은 것…….”(410면)과 대구를 이룬다. 어사가 찾는 기이한 것으로서의 이념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통치에 부합해야 한다. 그에게는 제국의 지배력을 훼손시키는 것이 곧 중대한

위험이다.

열하에서 본인이 희생양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이기는커녕 “사심 없이 공평하게”(349면) 일하는 마을의 일원으로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즉 만만이 희생양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잉된 주체로 활동하는 쪽이 제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사가 모으는 이념은 적당히 뼈뺌하고 불온하다. 그래야 제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의견을 꼼꼼 따져봐야 한다. ‘오늘날 인권을 중시하고,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맞서며, 탈-중심적 다중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부드러운 저항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올바른 항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는 올바른 항거는 결국 자유 민주주의의 오류와 실패를 은폐하고 지연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한다.’<sup>12)</sup>

희생양 이데올로기에 침윤돼 자신의 행위를 회피하지 않는 만만이야말로, 제국에게 불편한 존재다. 어사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는다. 만만의 벗겨지지 않는 하이힐 - 구습의 속박을 풀어주는 사람은 초매다. 그녀에 의해 하이힐이 벗겨지고 나서야, 무감하던 만만은 비로소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연암·초매와 마찬가지로 전생을 상기한 자의 표징이다. 만만이 초매를 이웃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부른 까닭도 그런 바탕에 기인할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부끄러움도, 분노도, 절망도, 욕망도 없을 것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고통으로, 부끄러움으로, 분노로, 절망으로, 욕망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딸이요, 후계자가 될 테니까.”(414면) 초매는 만만을 쓰다듬으며 공포한다.

만만이 초매의 딸이자 후계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두 사람의 모녀 관계가 전생에 맺어져 있던 것이라는 해명을 넘어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초매와 만만은 열하 바깥에서 이주

12)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15~16면 참조.

한 사람(의 후손)이다. 초매의 뒤를 이을 황제가 ‘오랑캐 만(蠻)자’를 쓰는 만만이라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왔다고 자부하는 한족이 아닌 변방의 만주족이었던, 영토의 경계를 교란하는 이민족은 언제라도 영토를 복속시켜 새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것이다. 『열하일기』에서도, <열하일기 만보>에서도 황제는 오랑캐 출신이다. 그러므로 위에 초매가 밝힌 것처럼, 황제의 실체와 황제에 대한 세상의 인식에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거보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는 사랑하는 만만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다. 그러나 거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는 초매에게서 만만의 하이힐을 건네받고 망연자실한다. 만만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한 짝사랑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는 해도, 거보의 마음은 열하(부부인 초매와 장복이 종속 관계임을 보라)에서는 특별한 애정의 형태였다. 만만을 매춘부라는 객체화된 대상에서, 정인이라는 단독적 타자로 전환시키려는 거보의 노력을 평범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랑의 역동성은 금기를 넘어선다. 이를 감안한다면 거보의 사랑이 열하의 무엇인가를 바꾸어놓을 수 있으리라는 예측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만이 떠나고 거보의 사랑은 그렇게 끝난다.

세상을 어슬렁거리는 연암은 그의 후일담을 전한다. “거보는 만만이가 남기고 간 하이힐을 달인 물을 먹고 보름 동안 잠들었다 일어난 후에, 만만을 깨끗이 잊었다…….”(417면) 거보만 만만을 지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 역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열하는 예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장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조어록』을 가르치고, 다른 동네에서 열하에 온 여자아이는 매춘을 하는 새로운 만만이가 된다. 열하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열하일기 만보>의 운명 결정론과 결부돼 결말은 관객·독자로 하여금 체념의 정조를 느끼게 한다. 인생과 세계의 앞날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허하고 텅 빈 불가항력적 세계관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희망이 아른거리는 것 같다. 연암은 열하 사람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연암이 종적을 감춘 이후에도 그들은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연암은 또 다른 후일담을 전한다. 길 잃은 사람들이 열하에 와서 종종 연암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밥 한 끼 잘 얻어먹자는 희떠운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창 너머로 먼지 자욱한 별판을 바라보면서 그 귀가 희고 얼굴이 불그레하던, 술 잘 먹고 괴상한 얘기 잘하던 짐승을 떠올리곤 까닭 없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공연히 쓴웃음을 지어 보기도 하였던 것”(419면)이라는 대목에 집중하자.

이것이 운명 결정론에 균열을 일으킨다.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이면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달라진 것이 있다. 그날의 독특한 체험은 열하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의 형태로 잔존해 상기될 것이다. 이마저도 운명적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냉정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망각됐다고 알려진 과거의 일도 결코 역사에서 말소되지 않는다. 있었던 일은 없던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짐승을 떠올리곤 까닭 없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공연히 쓴웃음을 지어 보기도 하였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기억이 개인의 추억일 뿐 아니라, 공동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이리하여 운명의 페이지는 다시 쓰인다. 그것이 <열하일기 만보> 운명 결정론의 운명이다.

#### 4. 맺음말

『열하일기』의 머리말 「열하일기서」에서 유득공은 이렇게 썼다. “지금



저 연암씨의 『열하일기』는, 나는 그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 요동 별판을 건너서 산해관으로 들어가고, 황금대의 옛터에서 서성거리며, 밀운성을 경유하여 고북구 장성을 빠져나가, 난하의 북쪽과 열하가 있는 백단현의 북쪽에서 마음대로 구경했다 하니, 진실로 그런 땅이 있었을 것이다. 또 청나라의 큰 학자들이나 운치 있는 선비들과 교유했다 하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sup>13)</sup> 『열하일기』를 통어하는 서문을 쓰면서 그는 이 책이 도무지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다만 박지원이 갔다 왔다고 하므로 그런 땅이 있었다고, 박지원이 만났다고 하므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믿을 따름이다.

배삼식의 <열하일기 만보>를 읽은 관객 - 독자의 심정 또한 유득공과 비슷할 것이다. 정체 - 문체 - 신체를 고리로 하여 이 작품에 대한 개별적 혹은 통합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답했으나,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라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다만 황량한 열하를 배회했으므로, 그 땅에 대해 말하는 네발짐승으로 야기된 한바탕 소란을 보았으므로, 그 일에 대해 천천히 돌아볼 따름이다. 이를 통해 조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질없는 인생을 문학적으로 도약시킬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조차 덧없게 하는, ‘덧없음의 덧없음’을 <열하일기 만보>의 해석 지평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문체가 정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념은 오늘날 폐기된 것처럼 보인다. 문체에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탓이다. 그런데 문체는 그렇게 무력하지만은 않다. 앞서 문체를 글의 의장과 의미가 교호하며 빚어내는 실체적 효과로 정의했다. 이것은 문체가 정체와 화용론적으로 접촉하며, 그에 따라 낱낱의 잠재성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집필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의인화된 주권 국가 모델이었다. 한

13) 유득공,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서」, 『열하일기 1』, 돌베개, 2009, 22면.

명 한 명의 시민이 모여 국가라는 거대한 구성체를 만들어낸다는 통찰은 정체가 개별적 인간 - 몸들의 전체 집합임을 지시한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주권적 신체로서의 정체임을 입증할 의무를 가진다. 그것이 문체의 몫이다.

읽고 쓰며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증명 과정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 개별적 신체로서 살아가는 나, 개별적 신체에 바탕을 둔 문체로서 표현하는 나, 이를 매개로 하여 정치적 공동체와 연동하는 정체로서의 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정체가 제일 나중에 온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신체와 문체 없이는 정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리바이어던이 그런 것처럼 각자의 몸들로 이루어진 삼향조는 한 몸이다. 이 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창작자의 삼향조다. 배삼식은 본인의 신체 - 리듬에서 기인한 반연극적 문체로서의 작품 <열하일기 만보>를 발표했다. 이것이 기성 연극계의 정체와 대결하며 ‘길 없는 길’을 찾아 헤맨 그의 정체 중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삼향조다. <열하일기 만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원작 『열하일기』의 신체를 변용시킨 몸으로 산다. 그러면서 연암 등이 발설하는 문체의 작용은 열하의 정체에 혼란을 발생시킨다. 밖에 대해 떠드는 “그놈(연암 - 율간이)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마을은 망하고 말야!”(353면)라는 호체의 위기감은 그래서 야단스럽지 않다. <열하일기 만보>는 이형의 신체가 발하는 문체, 문체의 효과가 진동시키는 정체, 정체가 흔들리며 수반되는 일련의 양상을 구현한다. 누군가는 이 작품에서 말들이 엮히는 언어유희의 소극을 읽어낼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결국 변하는 것은 없다는 냉소를 발견할 것이며, 누군가는 폐쇄된 집단의 폐단을 지적하며 외부와 교류해야 한다는 소통의 교훈을 포착할 것이다.

그런데 <열하일기 만보>의 정체가 내포한 문제의식은 이런 물음에 더 근접해있는 것 같다. “넌 정말 아무 문제도 못 느껴? 이렇게 사는 것에 대

해서?”(349면) 만만에게 묻는 거보의 질문이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의 상태를 자각하라는 요청이다. 또한 이 말은 문학적 응답 가능성을 기대하는 전언이기도 하다. <열하일기 만보>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아등바등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비관적 운명 결정론의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고, 우리를 즐겁고 들뜨게 했던 지난날의 마음을 떠올리며, 망각된 기억을 흐릿한 흔적으로서나마 소환하라고. 모래투성이 열하가 자작나무숲이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작나무숲에 살던 그때의 자신으로 회귀하여,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은 현재)를 동시에 산다. 그런 삶은 현재에만 머무는 삶보다 언제나 더 낫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지원,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3』, 돌베개, 2009.  
 \_\_\_\_\_,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한국고전번역원, 2004.  
 배삼식, 『배삼식 희곡집』, 민음사, 2015.

### 2.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언어와 비극』, 도서출판b, 2004.  
 기시다 슈, 권정애 옮김, 『게으름뱅이 학자, 정신분석을 말하다』, 펄북스, 2017.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4.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조재룡, 『번역의 유령들』, 문학과지성사, 2011.

### 3. 논문 및 평론

- 김남수, 「장르 간 비평적 소통 : 철학극장, 알레고리와 관념 사이로 어슬렁거리

- 다 - <열하일기 만보>, 『연극평론』 제45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07.
- 김방옥, 「탈근대 희곡에 나타난 인간/동물의 탈경계성 연구 - ‘타자성, -되기, 생태적 공존’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 김옥란, 「생체 기억의 생존자들, 비국민 혹은 호모 사케르, 『한국극예술연구』 제5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 박균섭, 「문체반정 독법 : 정조의 정치-교육론 미시 분석,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 배선애, 「[극작가 배삼식과의 만남] 인간을 ‘응시’하는 연극적 시선, 『공연과 이론』 제50호,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3.
- 심규선, 「극작가 배삼식 “이미 있는 길만 길인 것인가”, 『동아일보』, 2017.4.28.
- 엄현희, 「손진책 연출의 『열하일기 만보』 - 박지원의 예술과 정치의 결합, 혹은 교란, 『공연과 리뷰』 제56호, 현대미학사, 2007.
- 최영주, 「<이춘풍 난봉기>와 <열하일기 만보>를 통해 본 손진책의 ‘마당미학」,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Abstract

## Language Politics of Transformation and Ideology

- A Study of Bae Sam-Sik's *Yulha Ilgi Manbo* -

Heo Junhaeng

This paper analyzes *Yulha Ilgi Manbo*, a play written by playwright Bae Sam-Sik, and classifies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into three categories (physical, literary, and political) to integrate them into the language politics perspective. *Yulha Ilgi*, Park Ji-Won's record of his visit to Beijing and Rehe (Yulha) in China, was not an ordinary traveler's note; rather, it caused such political turmoil in the eighteenth century Chosun administration that the King himself referred to it as an indecent book. Similarly, for *Yulha Ilgi Manbo*, the outcome of the translation traversed across the journal. The political messages (in)advertently inscribed within and outside of the text are essentially the pursuit of eccentricity and abnormality, forming relations with strange objects. Through the process, *Yulha Ilgi Manbo* questions the essence of the strangeness-universality of singleness and singleness of universality-in the context of determinism. It does not simply encapsulate pessimistic resignation or optimistic desire; rather, it pulsates between them. This is when historicizing the unforgotten memory becomes critical. When dim traces of what is believed to have been forgotten are recalled, the present life obtains a power of creation that can be reorganized by connecting with the past and future. The summary or extent of such procedural practice is materialized in the form of language politics in *Yulha Ilgi Manbo*.

Keywords : Bae Sam-Sik, language politics, translation work, *Yulha Ilgi*, *Yulha Ilgi Manbo*

접 수 일 : 2017년 7월 3일

심사기간 : 2017년 8월 16일 ~ 8월 27일

게재결정 : 2017년 9월 14일